미국 마감 시황

2008.11.17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4일 뉴욕증시는 장중 널뛰기를 거듭한 끝에 미국 소매판매 약화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로 장 마감을 앞두고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하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337.94p(3.82%) 내린 8,497.31을 기록. 28종목이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홈디포 7.6%, 인텔 7.7%, JP 모간 7.3%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.

S&P500 지수는 38.00p(4.17%) 떨어진 873.29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.85p(5.00%) 떨어진 1,516.85에 장을 마감.

이날 뉴욕증시는 전일 550p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소비둔화 우려로 인하여 하락.

10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2.8% 감소하며 199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.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대 하락폭인 5.5% 감소를 나타내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표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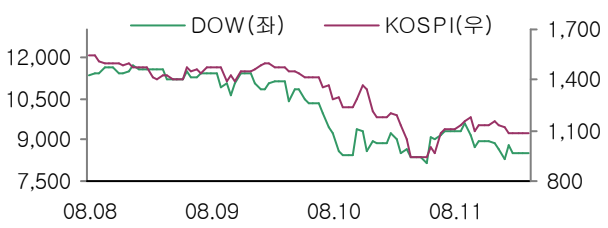
3개월만기 리보금리는 전일의 2.15%보다 오른 2.23%를 기록하며 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연출.

소비둔화 우려에 이은 미국 기업들의 암울한 실적전망 또한 투자심리를 위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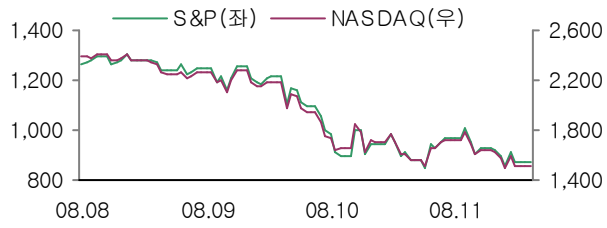
미 3위 소매업체인 JC 페니는 3/4분기 순익이 전년동기 대비 52% 급감한 1억2,400만달러에 그쳤다고 발표. 노키아는 세계 소비둔화로 인해 올해 휴대폰 판매 예상치를 기존의 12억6천만대에서 12억4천만대로 하향 조정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497.31	-3.82	-4.99	-8.88	-0.94	-26.85	-35.18
S&P(좌)	873.29	-4.17	-6.20	-9.85	-3.81	-32.46	-39.82
NASDAQ(우)	1,516.85	-5.00	-7.92	-11.86	-6.85	-38.18	-42.07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